

하나님의 폭력(violence)과 옴의 패러디(parody)*

류사라(백석대)

1. 들어가는 글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수용”(Yahweh' capacity for violence)이라는 진술을 통해 하나님의 폭력에 대하여 구약성경이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¹ 사실상 히브리 성서에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때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정의와 살롬을 수행하고자 하는 격앙된 인격

* 이 논문은 제122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구약성서와 폭력”(2023년 4월 21일)에서 발표된 것이며, 심사위원들의 제언을 통해 좀 더 명료한 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1 브루그만은 “숨어 계신 분”으로서의 모호성, 부정성이라 정의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우회적이고, 모호하시며, 성미가 급하시고, 안정되지 않으신 분”으로 표현된 벨(Timothy K. Beal)의 언급을 인용하였다.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학」(류호준/류호영 옮김) (서울: CLC, 2003), 579-643. 원저는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이 종종 그 형태에 있어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²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선하고 신실하며 정의, 사랑, 긍휼로 이해되고 있기에 폭력적인 하나님의 행동은 그의 존재론적 속성과 양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³ 그러나 하나님의 폭력, 혹은 거룩한 분노는 그의 백성을 위한 보호가 전제된 과잉 행동이다. 원인과 목적이 분명하며 결과도 뚜렷하다. 하나님의 과잉보호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며 살롬을 보장한다.

그러나 욥기에서 욥에 의해 묘사되는 하나님의 행동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정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 속성에서 비롯된 폭력과는 다르게 진술되고 있다. 뉴솜(Carol A. Newsom)은 욥기를 “다채로운 음성을 들려주는 작품(polyphonic text)”이라고 평가했다.⁴ 필자는 뉴솜의 진술에 힘입어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욥의 표현들이 고대 근동 신들의 특성들과 유사하다는 접근을 시도했다. 필자는, 욥이 ‘고대 근동 신들처럼 이기적이고 잔인한 폭력적인 하나님 이신가’라고 의심함으로써 그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냐며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욥의 문제제기⁵는 하나님의 본질을 긴장시키는 존재론적인 추궁이라는 것을 다루려 한다. 고대 근동 신들과는 다른 유일하게 완전하신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의심, 질문, 문제제기를 위하여 욥이 신들의 행동을 패러디하며 하나님의 침묵을 자극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폭력을 간략하게 스케치하였고 고대

2 H. G. L. Peels, “How can a God of Love Use Violence?” 『성경과 신학』 61호 (2012년), 3.
 3 브루그만은 “기이한 방식으로의 야웨의 이중성”이라 일컫는다. 브루그만, 윗글, 595.
 4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1-31.
 5 하경택은 욥기를 “질문과 응답”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석하면서 욥의 발언들을 “문제제기”로 인식한다.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성서학연구소, 2006).

근동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신들의 속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폭력성을 조명해 보았다. 그 후 욕의 진술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패러디를 관찰하고 고대 근동 신들의 행동과 비교하였다.

2.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폭력 스케치

구약성경에서 ‘폭력(violence)’은 정당화되지 않는다.⁶ 인간이 사용하는 폭력도 지양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6-7장의 노아 홍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창 19장), 가나안 땅 정복 등에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배치되는 일련의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 있다. 필스(H. G. L. Peels)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라고 해석했다.⁷ 하나님은 폭력을 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는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⁸ 고대 근동 신들은 인간세계에 대해 절대적으로 통제적이다. 인간적으로 행동하며 사람과 같은 욕망과 결점 및 행동을 드러낸다.⁹ 반면 하나님의 복수, 심판, 분노의 원인, 목적, 결과는 ‘관계’ 때문이다.¹⁰ 그의 백성 이

6 Peels, 윗글, 5.

7 윗글, 7.

8 윗글, 9.

9 존 D. 커리드,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 이옥용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15. 원제는 John D. Currid, *Against the gods: the polem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Wheaton, IL: Crossway, 2013).

10 크로스(F. M. Cross)는 야웨의 이름을 “이다(to be)의 사역형으로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월튼(John H. Walton)은 개인적인 신이 아닌 자신의 피보호자와 관계 맺는 것을 묘사한 이름에 사용된 아카드어 동사 “바누”(banu/세우다)와의 유사성을 추측했다. 이것은 관계의 시작을 묘사한다고 보았다. 즉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라는 제안이다. 존 H. 월튼,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 (신득일·김백석 옮김) (서울: CLC, 2017), 132 재인용. 원제는 John H. Walton, *Ancient*

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하나님의 폭력을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는 악의 심판을 위해 절제되지 않는다.¹¹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정의를 “선을 누릴 권리”라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¹² 정의가 실행되었을 때 그 결괏값은 ‘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³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조부터 그의 백성이 선을 누릴 권리를 위해 정의를 행하셨다.¹⁴ 즉 하나님의 폭력은 ‘정의’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와 평화를 그의 백성과 세상에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정의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폭력이 이행될 수밖에 없는 적법한 복수가 되기도 하며¹⁶ 하나님의 주권을 독점하려는 방법으로도 행해진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부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나타난 출애굽기 32장,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거짓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지도자들의 처형(민 25장)도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다.¹⁷ 아말렉은 진멸되어야 했고(삼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2006);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60-71.

- 11 Peels, 윗글, 8; G. E. Wright, *God Who Acts: Biblical Theology as recital* (London: SCM, 1952) 참조.
- 12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사랑과 정의: 정의로운 사랑은 가능한가」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7), 159. 원제는 Nicholas Wolterstorff, *Justice in Love*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 13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선을 미워한 것이라 밝힌다(미 3:1-2).
- 14 윌터스토프는 덧붙이기를 “가치에 걸맞은 방식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것이 상대를 정의롭게 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윌터스토프, 윗글, 166.
- 15 Peels, 윗글, 9.
- 16 브루그만, 윗글, 615. 그동안 하나님의 폭력성과 복수는 종종 전사이신 하나님으로 이미 지화 되어왔다. 노세영, “전사로서의 하나님,” 「신학과 선교」 21호 (1996년 5월), 113-38 참조.
- 17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비느하스의 질투(민 25:11)는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종교적 폭

www.kci.go.kr

상 15:2-3; 28:18),¹⁸ 열방의 앗수르, 바벨론의 패망도 좋은 예가 된다(사 10:5-19; 37:22-29; 암 1:3-2:3).¹⁹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간 인간의 폭력으로 인해 슬퍼하시고(창 6:5-6), 괴로워하시며 끝없이 질주하는 세상의 치달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개입하셨다.²⁰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스스로 파괴하신 것이다. 이러한 파괴를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구원하고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괴의 방식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하셨다. 프레타임(Terence E. Fretheim)은 이 사건을 “그의 백성을 재특정화(recharacterize)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²¹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폭력의 결과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한다. 노아 언약은 자신의 세계에 그러한 파괴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고 있다.²²

력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레고리 A. 보이드,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비추어 구약의 폭력적인 하나님 묘사를 해석하기」 류호영 옮김, (서울: CLC, 2022), 440의 각주 92 재인용. 원제는 Gregory A. Boyd, *The Crucifixion of the Warrior God: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s Violent Portraits of God in Light of the Cross*, Vol. 2.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2019).

18 사울이 진멸을 통해 모든 아말렉 족속과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사울을 거절하신다.

19 브루그만, 윗글, 615.

20 L. 다니엘 호크, 「하나님은 왜 폭력에 연루되시는가?」 홍수연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95. 원제는 L. Daniel Hawk, *The Violence of the Biblical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9). 호크는 이 책에서 성서 내러티브에 나타난 하나님의 폭력을 다루고자 하였다. 최근에 깊어진 성서와 폭력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 놓았다. 저자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기보다 그동안의 영향력 있는 연구였던 월터 브루그만, 프레타임(Terence E. Fretheim), 존 골딩게이(John E. Goldingay)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성서에 나타난 폭력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21 Terence E. Fretheim, “Does the God of Genesis 1-11 Cross Cultures?” 「구약논단」 37집 (2010년 9월), 170.

22 윗글, 172.

www.kci.go.kr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창 18:20)”에 그 원인이 드러나 있다. 이 도시들의 폭력,²³ 타락, 모욕, 사악함은 소돔 도시민들의 묘사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19:1-11). 하나님은 앞서 아브라함과 그의 지속적인 협의(18:23-33)를 통해 그의 분노를 삭이지만,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 도시들을 “다 없어 멸하셨다”(19:25). 강철구는 “선지서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로 인한 불의한 자들의 폭력과 연관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원인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다양한 측면의 폭력으로 읽힌다.

출애굽 사건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심이 드러나 있다(출 2:23-25).²⁵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부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러한 정체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라는 위대한 대리자를 보내셔서 그의 일을 이루셨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제²⁶하셨다. 가장 큰 배제는 파라오의 주권이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그의 통치권을 위하여 행한 어떠한 폭력이라도 고대 근동 신들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세상의 감독관이었다.²⁷ 파라오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표징과

23 강철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멸망원인은 그곳에 만연해 있던 ‘폭력’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폭력에는 ‘성폭력’, ‘환대 거부’가 포함된다. 강철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구약성경의 수용과 새로운 접근,” 「구약논집」 21집 (2021년 12월), 34.

24 윗글, 35.

25 브루그만, 윗글, 586.

26 볼프(Miroslav Volf)는 ‘배제’를 “쫓아내려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볼프가 정의하는 배제의 스펙트럼은 하나의 거대한 대항 내러티브로서 정복과 식민화, 민족적 노예화, 야만성과 공포와 악을 포함한다.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2), 85-153. 원제는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27 호크, 윗글, 160.

이적을 통해 끝내 다른 신들보다 큰 권능으로 이집트를 배제 시키는 신, 노예들의 하나님을 경험했다.²⁸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이집트 배제를 통하여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집단학살²⁹처럼 보이는 이 진멸의 명령은 가나안의 패역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³⁰ 이러한 진멸을 필 젠킨스(Phil Jenkins)는 “신적 야만성”³¹이라고 기술하였는데 그만큼 이 명령은 잔인하고,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가져왔다.³² 가나안은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술 취함 사건과 관련되어있다. 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레위기 18장 3절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

28 호크는 이집트에 폭력을 가한 하나님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야웨를 무명의 신, 노예들의 신의 갑작스런 출현처럼 진술한다. 무명의 신인 야웨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권과 목적을 이루어야만 했다는 접근을 펼친다. 호크, 윗글, 192-96; 밀러(Patrick D. Miller)는 폭풍의 신인 바알의 모습과 야웨와의 유사성을 언급하지만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다. 패트릭 D. 밀러,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종교」, 김병하 옮김, (서울: CLC, 2018). 원제는 Patrick D. Miller,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29 Peels, 윗글, 9. 종교를 앞세워 국가들이 대립하는 전쟁인 “지하드(jihad)”가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의 싸움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분쟁이다. 그들의 목적과 방식은 구약 성경의 거룩한 전쟁인 진멸에서 벗어나 있으며 정치적이다.

30 윗글, 10.

31 Boyd, 윗글, 416의 각주 42 재인용.

32 진멸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을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Lori L. Rowlett, *Joshua and the Rhetoric of Violence: A New Historicist Analysis* (JSOTSup 22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51-70 참조.

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사랑, 보호를 위하여 진멸을 택하셨다.³³ 호크(L. Daniel Hawk)는 “야웨의 폭력은 특정 대상이 있으며,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야웨의 탁월함을 공표하고 입증하며, 새로운 땅에 새로운 백성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리했다.³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일하셨으며 하나님의 폭력의 궁극적인 정점이 그 백성 이스라엘의 ‘보호’라는 것을 알려준다.³⁵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폭력성은 ‘약속’과 연관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³⁶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던 땅을 정복해야 했고 그곳에 정착해야 했다.³⁷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 다른 민족들에게는 폭력적이었고 희생을 치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했기에 이방 민족에게 분노하고 보복한다(신 32:35-42). 브루그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자기 백성을 위한 도가 지나친 헌신”, “이스라엘을 향한 극단적인 헌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³⁸ 하나님의 폭력은 ‘약한 자들’(이스라엘)을 위해 ‘강한 자들’(땅의 소유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³⁹ 그러나 후

33 Peels, 윗글, 10.

34 호크, 윗글, 337.

35 윗글, 337.

36 아이히로트(Walter Eichrodt)는 “이 언약 관계의 궁극적 토대는 영주-봉신 조약의 경우와 달리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봉사나 섬김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이 토대는 정말로 비이성적인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Boyd, 윗글, 406의 각주19 개인용.

3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처럼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수 21:43).

38 브루그만, 윗글, 596, 616.

39 윗글, 617.

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약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땅이 그들 스스로 ‘강한 자들’이 되었을 때 땅을 잃게 된다(주전 587년의 예루살렘 패망).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울어진 사랑 때문에 맹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⁴⁰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며 훼파하기도 하신다.⁴¹ 즉 하나님의 주권은 독점적이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의 기반은 정의이며, 정의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폭력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그 사랑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 숨어있다. 이에 대한 브루그만의 평가는 적절하다. ‘자녀에게 미친 부모처럼’, ‘변심한 아내를 찾아 헤매는 남편처럼’ 이스라엘에 대해 뜨겁고 강렬한 사랑과 헌신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변심했을 때(겔 16, 20, 23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돌변한다.⁴² 이스라엘의 변심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나의 분노”(겔 23:25, 사 54:8)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하나님 행동의 표출이다. 하나님의 과잉 행동과 ‘관계’에 집착한 폭력의 흔적들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되찾고자 하는 열심 때문이다(왕하 19:31; 사 42:13; 율 2:18).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소유욕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폭력이 나타난 본문들이다:⁴³

에스겔 16: 38-41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

40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월주의와 종교 무력주의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제공할 수 있다.

41 브루그만, 윗글, 601.

42 “정당화 될 수 없는 폭력적 사랑”, 윗글, 618.

43 이 논문에 사용된 모든 한글성경은 개역개정임을 밝힌다.

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3: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붙잡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9:9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자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레미야애가 1:5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스가랴 1:14-15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은 남편을 배신한 여인처럼 간음과 음행을 행한 예루살렘의 결과를 말해준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의(敵意)가 되어 난폭한 남편처럼 돌변한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 보

www.kci.go.kr

여준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난감하다. 리이머(A. James Reimer)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지만,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⁴⁴ 보이드(Gregory A. Boyd)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를 제대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형벌을 담고 있어야”한다.⁴⁵ 이에 더하여 폭력이 난무한 고대 근동 신들의 세계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폭력 개입은 다른 방식이다. 하나님은 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셨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만 선포될 수 있게 하셨다. 자기 백성을 가능한 한 자신의 평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셨다는 것이다.⁴⁶ 스미스(George Adam Smith)는 이와 비슷한 견해를 말한다. “여호와에 대한 개념들은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의 부족 신들과 매우 닮은 여호와에 대한 초기 개념부터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상당히 다른 여호와의 개념으로 발전한다.”⁴⁷ 이러한 진술은 하나님의 행동과 고대 근동 신들의 행동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동시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폭력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약속,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흘러넘쳐야 했던 정의와 공의, 약한 자들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보호와 사랑을 전제한다. 하나님 자신의 제국건설이나 왕국통치와 조종, 소유욕을 위한 폭력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권능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억

44 Boyd, 윗글, 533의 각주 18 재인용.

45 윗글, 543.

46 윗글, 552-53. 이러한 해석은 많은 학자에게 수용되었다. Millard C. Land, *Yahweh is a Warrior: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0);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us Noster*,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 Douglas K. Stuart, *Exodus*, (NAC 2; Nashville: B&H Publishing, 2006).

47 Boyd, 윗글, 564 각주 62 재인용.

압과 폭력의 통치를 원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폭력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승인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 근본 원인은 회복이었다는 것이다.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폭력적인 사랑”⁴⁸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이다. 악행과 우상숭배를 차단함으로써의 회복, 열방을 배제함으로써의 회복, 인간의 폭력을 심판함으로써의 회복,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시행한 정의와 공의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신들은 무엇 때문에 폭력적이 되는가. 신들의 폭력을 간결하게 살펴보자 욕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폭력에 다가가 보려고 한다.

3. 고대 근동 신들의 폭력 스케치

얀 아스만(Jan Assmann)은 신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고 설명한다.⁴⁹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화에서 최초의 신들은 창조신이 침을 뱉고 재채기를 하고 땀을 흘리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태어난다.⁵⁰ 이렇게 태어난 신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신들이 된다. 이 신들은 기능적인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한다. 왕으로, 제의의 형상으로, 신성한 동물, 식물로 존재하게 된다.⁵¹ 신들의 존재감과 성격은 그들이 맡은 기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신들의 이름은 역할과 관련된 정체성을 알려준다. 한 신에게 부여된 이름의 수가 많은 것은 그 신의 능력

48 브루그만, 윗글, 618.

49 월튼, 윗글, 126의 각주 14 재인용.

50 Kenton L. Sparks,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5), 305-43.

51 월튼, 윗글, 125-26.

과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다.⁵² 흥미로운 것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가 신들의 기능을 “인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즉 신들은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탄생하고, 하는 일은 인간과 같은 일들이었으며 그들의 세계는 기능 지향적인 사회여서 비활동적인 신이나 직무가 없는 신들은 사라지게 되는 구조적 순환이 일어난다.⁵³

우가렛의 엘(EI)은 하나님과 비슷한 공홀, 지혜, 재판, 창조주, 아버지, 신들 공회의 우두머리⁵⁴, 왕권, 장막의 소유, 스랍 보좌를 가지고 있다.⁵⁵ 바알은 구름을 타는 폭풍의 신이며 자연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⁵⁶ 바알은 자신의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대적과의 전투에 참여하는 전사로서 움직이면서 자신의 신전(temple)을 소유하고 그곳에 보좌를 가지고 있어서 전투를 치른 후에는 그곳으로 돌아와 앉는다. 그들의 세계는 권력과 중앙집권화, 통합이 있고 대리적 역할을 하는 신들과 중보자 역할을 하는 신들로 나뉘며 최상위 권력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최고의 신이 존재했다.⁵⁷ 신들의 하위 무리는 좌정된 신들을 섬기며 공회를 구성하고 자율권과 독립성은 없었다.⁵⁸ 그들은 인격과 언어가 없는 본질적으로 무명의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권력욕

52 윗글, 131.

53 윗글, 128, 133.

54 이러한 공회는 고대 근동 세계의 비교 증거로서 구약성경에도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왕상 22:19)”,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욥 1:6);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사 6:1-2).

55 밀러, 윗글, 96-97.

56 밀러는 바알이 기능적인 면에서 야웨와 가장 유사하다고 본다. Patrick D. Miller, “El the Warrior,”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JSOTSup 26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30-31.

57 밀러, 윗글, 98.

58 윗글, 99.

의 갈등도 없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 마르두크(Marduk)는 신들의 공회로부터 50개의 호칭을 부여받음으로써 승리하고 그 승리로 인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다.⁵⁹ 이로써 마르두크는 운명을 명하는 자로서 신들의 창조와 통치를 수행한다. 신들의 운명과 기능, 지배권과 통치권을 총괄한다. 마르두크는 창조를 위해 파괴하기도 하고, 파괴하기 위해 창조하기도 한다.⁶⁰ 그의 폭력은 통치를 위한 것이며 그의 세계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신이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은 싸움을 통해서이다. 신들은 다양한 차원으로 충돌한다. 신들은 개인, 집단의 문제로서 싸우며 인간과 충돌하는 관계로 들어선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신이 최고신으로 격상되며 그의 역할에 정당성이 부여된다.⁶¹ 그들의 메커니즘에는 충돌, 싸움, 혼란, 폭력이 존재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통제와 권위, 명성, 지배가 생성되기 때문이다.⁶²

이 신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결정은 집단에서 이루어졌다. 신들의 공회, 회의가 있었다. 이들의 회합은 50명의 지정된 주신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 중 7명의 신들이 운명을 결정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이 공회의 우두머리로는 수메르 문헌에서 나타나는 아누(Anu)와 엔릴(Enlil)이 대표적이다.⁶³ 길가메쉬는 홍수를 내리려는 결정이 이 공회를 통해 나왔고 인구수를 제한하는 것과 인류의 운명도 이곳에서 결정되었음을

59 윗글, 129.

60 존 H. 월튼,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강성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15의 각주 124 재인용. 원저는 John H. Walton,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61 월튼, 윗글(2006), 129-134.

62 윗글, 135-41. 신들은 하급 신들의 반란, 질서를 세우기 위한 충돌, 혼돈의 괴물이 주는 위협 감지, 통치권, 세대 간 쿠데타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정기적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63 윗글, 133-34.

보고한다. 왕권의 제거와 운명을 선포하는 것도 이곳에서 결정되었다.⁶⁴

고대 근동 신들의 속성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의 역할과 개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영웅으로 여겨지는 신들은 대적들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지며 권력투쟁에 있어서 강하고 승리자로 드러난다. 따라서 찬양과 송축을 더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다. 이들은 투쟁적이고 권력지향적이기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악의와 욕망과 분노에 쉽게 휩싸인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공의와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 신들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처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모든 속성을 지녔다.⁶⁵ 신들의 활동영역은 제한되어 있었다. 우주의 신들은 해당 우주의 현상에만 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우주적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었고 자신이 속한 경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⁶⁶ 즉 자신의 관할 영역과 권한은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영역의 관할권이나 권위는 가질 수 없었다. 신들은 출산도 하고, 재판도 하고, 실수하고, 교활하고, 범죄 하였으며 판단력이 부족하고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을 지녔다. 그들은 수치와 두려움도 겪었다. 인간처럼 활동하고 물리적인 신체구조와 정신을 가졌다. 그들에게 공회가 있었던 것처럼 공동체와 집단사회가 있었다. 이집트 역사는 신들이 인격체가 되어 소속영역이 필요했고, 가족관계, 정치구조 안에서 사회적 역할을 가짐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다고

64 윗글, 135-37. 아웨의 공회도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전쟁과 정치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며, 왕을 선출하고 폐위하며 역사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깊이 관여한다는 면에서 고대 근동 신들의 회합과 유사하나 창세기를 통해 볼 때, 아웨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면에서 다르다. 신들의 회합과 아웨의 공회에 대한 비교 연구로 P. Miller, "Cosmology and World Order in the Old Testament: The Divine Council as Cosmic-Political Symbol,"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JSOTSup 26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R. Clifford,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HSM 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를 제안한다.

65 윌튼, 윗글(2006), 146-47.

66 윗글, 148.

기록하고 있다.⁶⁷

고대 근동 신들의 속성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신들의 자아 인식이 존재론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직무와 활동에 관련되어있는 협소한 정체성이라는 것이다.⁶⁸ 앞서 아스만의 언급을 다시 상기하면, 신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아를 인식한다. 신적 존재론과 본질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활동, 역할, 직무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신은 정의로운가?”가 아니라 “신은 정의를 행하는가?”로 질문해야 할 것이다.⁶⁹ 그러나 신 자체가 정의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행동도 그 증거들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열등한 자질들과 자신의 개별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한 투쟁과 전쟁, 자신의 임무와 속성에 매여있어 인간에게 신실할 수 없으며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들은 정의를 행하려 하지만 불완전하게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⁷⁰ 즉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정의롭지 않으며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정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들이 백성을 버린다. 또한, 백성을 버리기 위해 심판을 한다.⁷¹ 그들은 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선한 성품과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다. 신실함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들은 신실해야 하는 약속, 협정도 없으며 약속이 있다 하여도 헌신하지 않는다.⁷²

67 윗글, 148-58.

68 강사문은 가나안의 신들이 가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생존을 위한 기능이 문제였다고 언급하였다.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과 고대 가나안의 신상들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26호 (2006년 8월), 30.

69 윌튼, 윗글(2006), 152.

70 윗글, 154.

71 윗글, 155.

72 윗글, 157.

중요한 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기능과 역할의 관계라는 것이다. 인간은 신들을 위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하에 창조되었고 신들에게는 자신의 비천한 업무를 처리해 주는 대상이 인간이다. 이것이 나중에 왕권 이데올로기로 발전한다.⁷³ 고대 근동에서 신들에게 인간은 ‘대리자’ ‘비천 업무 수행자’였다. 인간과 신들은 우주의 질서와 운행을 위해 함께 일하지만 그들의 창조, 활동, 행위에는 인간을 위한 목적과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의 생존과 승리, 권력과 지배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신들의 폭력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욱은 왜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고대 근동 신들의 이미지를 발견한 것일까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시대적 환경 안에서 욱에게 고대 근동 신들의 속성은 익숙했다. 필자는, 욱이 신들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추궁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속성을 긴장시켰다고 판단한다. 이것은 이전의 하나님과 욱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결과도 낳는다.

4. 하나님의 폭력에 대한 욱의 패러디

구약성경의 욱기와 고대 근동 문학 작품들과의 유사성 연구가 풍부한 만큼 욱기 저자는 고대 근동에 대하여 해박하다.⁷⁴ 욱기 전체에 고

73 윗글, 159.

74 고대 근동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욱기의 비교 연구 작품들은 수메르 의인의 고통을 다룬 「탄식자와 그의 하나님」, 아카드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원전 16세기경의 「인간과 신과의 대화」, “바빌로니아의 욱”으로 잘 알려진 「나는 지혜의 주님을 찬양 하리라」가 있다. 이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으로, 안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욱기」(서울: 감은사, 2020), 71-104; 데이빗 J. A. 클라인스, 「욱기 1-20」, 한영성 옮김, (서울:

대 근동의 요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욥 31:26-28).⁷⁵ 욥의 출신과 거주지인 “우스”(욥 1:1)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⁷⁶ 그가 동방 사람이며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친구들의 출신(데단, 수아, 나야마)을 통해서 추정될 뿐이다.⁷⁷ 욥의 거주지는 욥이 고대 근동의 모든 것과 친숙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면 욥은 욥기 저자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욥기 저자가 욥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저자의 확언은 “내 종 욥(1:8; 2:3)”에서 분명해진다. 욥은 고대 근동 환경에 익숙한 이방인이지만 그는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대 근동 사상에서 주종관계는 ‘신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인간’으로 나타난다. 근동 세계의 메커니즘은 기능과 역할의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못할 때 무가치해지는 구조이다. 근동 사상의 측면으로 볼 때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으로서 기능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고대 근동 신들과는 다른 신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욥기 프롤로그가 전하고 있다. 프롤로그를 통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능적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순환하는 인격적인 관계였을 것으로 짐작할

솔로몬, 2006), 192. 원제는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TX: Word, 1989). 79-80; 트렘퍼 롱맨 III, 「욥기 주석」, 임요한 옮김, (서울: CLC, 2017), 64-74. 원제는 Tremper Longman III, *Job* (Grand Rapids, MI: Baker, 2012)을 제안한다.

- 75 예를 들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행하던 천체숭배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이집트를 비롯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서 대중적이었다. 욥은 천체숭배를 배격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욥 31:26-27). 강성열, “구약과의 관계에서 보는 이집트의 신화와 종교,” 「신학이해」 14호 (1996년), 140 참조.
- 76 우스가 나중에 에돔으로 알려진 지역에 있는 성읍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존재한다. 예레미야 애가 4:21은 우스를 에돔과 평행하여 사용하고, 이름이 우스인 사람이 에돔의 족보에서 발견된다(창 36:28; 대상 1:42). 욥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다. 롱맨, 윗글, 121.
- 77 클라인스, 윗글, 261-65.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다. 그의 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욥의 진술에는 자신이 알고 믿은 하나님이 고대 근동 신들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신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열되고 있다:

욥기 6:4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구절의 핵심에 대하여 클라인스(David J. A. Clines)는 “그를 내리 누르는 것은 육체적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의식이다”라고 말했다.⁷⁸ 분명 그렇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독화살을 쏘기 위해 욥을 겨냥한 궁수와 같다. 가나안의 역병과 전쟁의 신 레셰프(Resheph)는 오른손에 창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화살의 레셰프”로 알려져 있다.⁷⁹ 그는 지하의 신으로서 악령들의 충성을 호령하며 화살들로 역병을 퍼뜨린다.⁸⁰ 하나님은 레셰프가 아니지만, 클라인스의 말대로 “그분은 마치 그 신처럼 행하신다.”⁸¹ 궁수의 독화살은 그의 먹이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먹이처럼 생각해 죽이려는 독화살을 쏜 궁수에 비유하고 있다.⁸²

78 윗글, 449.

79 강사문, 윗글, 19.

80 클라인스, 윗글, 448. 비슷한 이미지로,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에 2:4),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심이어,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에 3:12-13),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겔 5:16)이 있다.

81 윗글, 448.

82 N. C. Habel, *Job*, (OTL: London, SCM: 1985), 145.

욥기 7: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사람을 감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보호’와 그로 인한 그 백성의 ‘안전’을 의미한다.⁸³ 그러나 고대 근동 신들에게는 그들의 속성 중 ‘감시’가 이에 해당한다. 신들은 인간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 감시하지 않는다. 온전히 신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정서적 짓눌림을 철저한 감시로 받아들인다. 또한, 욥은 무거운 짐을 지는 억압받는 노예로 자신을 인식한다. 고대 근동 신들은 인간을 그들의 노동을 가볍게 하고 비천한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을 통제했다.⁸⁴

욥기 9:17-19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피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거칠고 거세며 잔인하고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욥을 치시는데, 이 폭풍은 1장 19절에서 이미 등

83 시 12:8; 31:24.

84 Sparks, 윗글, 321.

장했었고 갑자기 욥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욥에게 폭풍은 공포와 죽음의 모티프다.⁸⁵ 고대 근동의 바알은 비와 번개와 폭풍의 신으로서 강력한 전투사로 구름을 타고 다니며 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폭풍을 일으키며 반역자들을 징벌하고 정복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여 충돌한다.⁸⁶ “힘”과 “심판”의 위력은 우가릿에서 재판관으로 묘사되는 바알의 속성이기도 하다.⁸⁷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욥에게 잔혹하시다. 힘겨루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상승시키는 것은 고대 근동 신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행동이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까닭 없이 싸움을 일으켜서 이긴 신은 더 많은 이름을 획득하고 신들에게 명령하며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들의 이러한 폭력에는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위상을 위해 충돌하고 폭력을 행사할 뿐이다.

욥기 16:9-10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같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85 폭풍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며 재등장한다(38:1). 이로써 폭풍은 욥기 안에서 죽음과 회복을 이중적으로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8), 176; Habel, 윗글, 193 참조.

86 Sparks, 윗글, 321. 바알은 손에 번개와 천둥을 쥐고, 발로는 바다를 밟고 선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의 거처 및 신전은 북방에 있다(출 14:2; 시 48:2; 68:17; 사 14:13).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태풍-신인 하다드/아다드와 비슷하다. 그러나 바알의 다양한 현현을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바알 신화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과 성경 외의 문헌에 나타난 바알 묘사에 대해 크리스토퍼 B. 헤이즈,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성경」 임요한 옮김, (서울: CLC, 2018), 529-35를 참조. 원제는 Christopher B. Hays, *Hidden Rich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87 헤이즈, 윗글, 530.

옴은 하나님을 분노를 참지 못해 초인적인 힘으로 찢고 적대하는 들짐승과 같은 분으로 묘사한다.⁸⁸ 이러한 모습은 피에 굶주려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가나안의 여신 아나스(Anath)와 유사하다.⁸⁹ “이”, “눈 초리”, “입”의 사용은 파괴를 위한 분노와 힘을 상징하는데 적합하다. 옴은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희생되고 있음을 알린다.⁹⁰ 게다가 그들은 “함께 모여” 대적한다. 고대 근동 신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하는데 익숙하다. 옴에 대한 학대가 실제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것은 마치 집단폭행과 같은 방식으로 옴을 대적한다.⁹¹ 롱맨(Tremper Longman III)은 “이 구절은 하나님에 맞서는 옴의 가장 강력한 고발”이라고 평가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진노하는 분이지만 옴은 그 진노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된 것에 대하여 절망한다.

옴기 21: 7-9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이 장수하고 그들의 후손들도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9:34)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정의실행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보류되

88 클라인스, 윗글, 776; Habel, 윗글, 272.

89 아나스는 질투와 전쟁의 여신으로 잔인하며 핏속을 거닐고 원수의 피에 발을 씻는 것을 즐기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애굽의 이시스, 바벨론의 이스타르, 히브리 성서에서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과 혼용된다. Habel, 윗글, 272; Rowlett, 윗글, 72-73 참조.

90 Hatley, 윗글, 261.

91 Habel, 윗글, 272; 롱맨, 윗글, 390.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파괴적인 질병이나 재앙과 같은 물리적인 징계를 그들은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와 반대이다. 자식들을 일찍 잃었다. 삶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테러는 욥 위에 있다.⁹² 욥은 하나님이 죄의 목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들처럼 정의의 기준도 없이, 자신의 욕망과 분노, 쟁취를 위하여 테러를 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신다고 고발한다.

욥기 24:1-4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구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진술이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정의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진술이다.⁹³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공의의 재판받을 수 있는 길로부터 밀쳐낸다.⁹⁴ 가난한 자들은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처우는 가난한 자들 스스로 사회 내에서 소멸하는 길을 택하도록 만든다. 부당한 대

92 Habel, 윗글, 327.

93 윗글, 358 참조.

94 데이빗 J. A. 클라인스, 「욥기 21-37」,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9), 203. 윌체는 David, J. A. Clines, *Job 21-37*, WBC, 18A. (Nashville, KY: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우를 피하고자 악인들에게서 스스로 숨기려 하는 것이다.⁹⁵ 그것이 차라리 안전하기 때문이다.⁹⁶ 이러한 사회적 냉대의 반복은 가난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폭력을 마치 정당하게 여기게 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게 된다. 이 기이하고 슬픈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때는 “전능자의 때”이다. 전능자의 때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 행해지는 날이다. 의인은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고난의 때를 견딘다.⁹⁷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관심이 없는 듯,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정의하지 못하는 고대 근동 신들처럼 “하나님의 날”(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정의실행은 보류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 아니신가. 안근조는 “욥기는 인과응보적 신정론 교리의 실패 선언”이라고 규정하였다.⁹⁸ 안근조의 해석은 옳다.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명기적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은 욥기 안에서 철저하게 의심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유 없이 폭력과 무정의, 불공평으로 반역자를 징벌하는 고대 근동 신들처럼 욥에게 인식되고 있는 하나님을 관찰하였다.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고대 근동 신들의 개념이 팽배했던 상황과 자신의 고통이라는 경험적인 환경 아래서 욥은 고대 근동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시적으로 고립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온전하게 사유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욥은 하나님을 고대 근동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 인식해왔고 신앙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했다. 신들

95 룡맨, 윗글, 495.

96 클라인스, 윗글(2006), 204.

97 Hatley, 윗글, 345.

98 안근조, 윗글, 437.

과 인간과의 비인격적인 관계, 억압과 통제를 위한 폭력의 신들이 아닌 인격과 정의의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했고 옴은 자극했다. 죄의 기준도 없고 목록도 없이 악의와 자기과시로 힘자랑을 하는 신들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한 정의의 징벌과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폭력의 대상이 된 이유를 알려주시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힘과 권위를 사용하시는 자비와 보호의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대적으로 삼으시고 그 큰 힘과 능력을 낭비하시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징계와 정의실행의 보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모든 존재론적 인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⁹⁹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옴의 의심과 고립된 인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존재론적 추궁은 하나님을 자극했을 것이다.

5. 나가는 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시는데 거침이 없다. 이방 민족을 쫓으시고 악행과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남김없이 진멸한다. 폭력적인 사랑으로 비칠지라도 후회 없이 행하시고 마침내 그의 백성을 되찾으시며 회복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셔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헌신과 신실은 거룩함과 정의의 결과를 위한 것이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선을 제공하신다. 이스라엘 안에서든

99 옴의 하나님 인식에 대한 제안은, 필자의 “옴의 열 번에 탄식에 나타난 문학적 테마와 옴의 하나님 인식 전환,” 「한국개혁신학」 76집 (2022년 11월): 12-47을 참조.

밖에서든 하나님의 폭력 목적은 뚜렷하고 일관적이다. 창조자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창조세계를 보호하시기 위해 폭력을 사용, 승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의 폭력이 다르게 인식되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폭력은 고대 근동 신들과 다르지 않은 이유 없이 잔인하고 거칠고 비인격적이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회복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비록 욥이 자신에게 익숙했던 고대 근동 환경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고립되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이 의심으로 인해 욥은 고대 근동 신들의 속성을 패러디하며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을 자극하였다.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라면 대답하시라는 질문이요, 의심이었다. 이러한 자극은 하나님을 긴장케 했을 것이며 고대 근동 신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대답해야 했을 것이다(출 3:14).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과 고대 가나안의 신상들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26호 (2006년 8월): 11-31.
- 강성열. "구약과의 관계에서 보는 이집트의 신화와 종교." 「신학이해」. 14호 (1996년): 109-150.
- 강철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구약성경의 수용과 새로운 접근." 「구약논집」. 21집 (2021년 12월): 9-42.
- 노세영. "전사로서의 하나님." 「신학과 선교」. 21호 (1996년 5월): 113-38.
- 류사라. "욥의 열 번의 탄식에 나타난 문학적 테마와 욥의 하나님 인식 전환." 「한국 개혁신학」. 76권 (2022년 11월): 12-47.
- 안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감은사, 2020.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의 욥기 연구」. 서울: 성서학연구소, 2006.
- 윌터 브루그만, 「구약신학」. 류호준·류호영 옮김. 서울: CLC, 2003. 원제 Brueggemann,

Walter. *Theology of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그레고리 A. 보이드,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비추어 폭력적인 하나님 묘사를 해석하기」. 류호영 옮김. 서울: CLC, 2022. 원제 Boyd, Gregory A. *The Crucifixion of the Warrior God: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s Violent Portraits of God in Light of the Cross*. Vol. 2.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2019.
- 데이빗 J. A. 클라인스, 「욥기 1-20」.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Waco: Word, 1989.
- _____, 「욥기 21-37」.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9. 원제 Clines, David. J. A. *Job 21-37*. WBC. 18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9.
- Currid, John D. 「고대 이집트와 구약성경」. 신득일/김백석 옮김. 서울: CLC, 2020.
- 존 커리드, 「고대 근동 신들과의 논쟁」. 이옥용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원제 Currid, John D. *Against the gods: the polem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Wheaton, IL: Crossway, 2013.
- Clifford, R. *The Cosmic Mountain in Canaan and the Old Testament*. HSM. 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Fretheim, Terence E. "Does the God of Genesis 1-11 Cross Cultures?" 「구약논단」. 37 집 (2010): 156-75.
- Habel, N. C. *Job*. OTL; London: SCM, 1985.
- Hatley, John E.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1988.
- 크리스토퍼 B. 헤이즈,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성경」. 임요한 옮김. 서울: CLC, 2018. 원제 Hays, Christopher B. *Hidden Rich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 다니엘 L. 호크, 「하나님은 왜 폭력에 연루되시는가?」. 홍수연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원제 Hawk, L. Daniel. *The Violence of the Biblical God*. Grand Rapids, MI: Eerdmans, 2019.
- Land, Millard C. *Yahweh is a Warrior: The Theology of Warfare in Ancient Israel*.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0.
- 트램퍼 롱맨 III. 「욥기 주석」. 임요한 옮김. 서울: CLC, 2017. 원제 Longman III, Tremper. *Job*. Grand Rapids, MI: Baker, 2012.

- Miller, Patrick D. "Cosmology and World Order in the Old Testament: The Divine Council as Cosmic-Political Symbol,"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JSOTSup 26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_____. "El the Warrior." in *Israelite Religion and Biblical Theology*. JSOTSup 267. 1987: rep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패트릭 D. 밀러,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종교」. 김병하 옮김. 서울: CLC, 2020. 원저 Miller, Patrick D. *The Religion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K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A Concep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eels, H.G.L. "How can a God of Love Use Violence?." 「성경과 신학」. 61호 (2012): 1-16.
- Rowlett, Lori L. *Joshua and the Rhetoric of Violence: A New Historicist Analysis*. JSOTSup. 22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Sparks, Kenton L. *Ancient Texts for the study of the Hebrew Bible: A guide to the background Literature*.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5.
- Stuart, Douglas K. *Exodus*. NAC, 2; Nashville: B&H Publishing, 2006.
-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박세혁 옮김. 서울: IVP, 2012. 원저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6.
- 윌터 스토프, 「사랑과 정의」. 홍종락 옮김. 서울: IVP, 2017. Wolterstorff, Nicholas. *Justice in Love*. Grand Rapids, MI: Eerdmans, 2011.
- 존 H. 월튼,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강성열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원저 Walton, John H.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 _____.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 신득일·김백석 옮김. 서울: CLC, 2017. 원저 Walton, John H.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2006.
- Wright, G. Ernest. *God Who Acts: Biblical Theology as Recital*. London: SCM, 1952.
-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us Noster*.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4.

검색어

하나님, 폭력, 고대 근동 신들, 욱기, 욱의 인식, 패러디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God's Violence and Job's Parody

Sarah Ryu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opines that Job recognized God's actions against him comparable to the violence by the gods of the ancient Near East. He doubted the existence of God because of his own circumstances and experiences in which the original attributes of God, who protects his people with love, compassion, and justice, were neither visible nor applicable. This resulted from Job's own unique observation and awareness of the person of God. Conventionally, God is known to be unstoppable in using violence in order to love and protect his people. He chases and chastises them without leaving any residue to eliminate evil and sin. Even if it seems like a violent love, God acts without regret and finally recovers and restores his people. God is the adversary of those who threaten his people, and he judges and avenges them. God's devotion and faithfulness are to result in holiness and justice, ultimately providing good for Israel in a variety of ways. Whether in Israel or outside it, God's purpose for violence is clear and consistent. God, as Creator and Sovereign, approves and uses violence to protect his people and creation. Violence is safe under God's hand. However, to Job, God's violence was perceived differently. It was not a God of justice who protects and restores his people. The violence of God he encountered was cruel, wild, and impersonal. Job had doubts about God. Job casts a challenging question, "Is YHWH a selfish,

www.kci.go.kr

cruel, and violent God like the gods of the ancient Near East?” Job’s raises an ontological inquiry that strains the character of God. Job thus provokes God’s silence by parodying the actions of the gods of the ancient Near East.

key words

God, Violence, Ancient Near Eastern gods, The Book of Job, Job’s cognition, Parody

투고일 : 2023년 04월 03일

심사일 : 2023년 05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05월 28일

www.kci.go.kr